

9일부터 이틀간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

코레일 광주시사는 올해 추석연휴(9월12~16일) 동안 운행되는 열차의 승차권을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예매한다고 2일 밝혔다.

예매일자는 노선별로 나뉘며 경부·충북·경북·대구·경전·동해남부선은 9일, 호남·전라·중앙·장항·태백·영동·경춘선은 10일이다. 승차권은 1일당 왕복 12매까지 구매할 수 있고, 7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는 일행을 나눠서 예매해야 한다.

예매방법은 시간대별로 인터넷과 창구로 나뉘어 각각 진행된다. 인터넷은 노선별 예매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코레일(www.korail.com)과 큐비닷컴(www.qubi.com)에서 선착순 접수하고, 창구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국 철도역과 지정된 철도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이뤄진다. 예매가 끝난 승차권은 10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로 문의하면 된다. /인원주기자 ahj@

대한민국 인재상 후보자 시, 내달 16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2008 대한민국 인재상' 후보자를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2일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 안내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내 17개 대학교와 62개 고등학교, 시교육청 등의 협조를 받아 오는 21일부터 8월 16일까지 수상 후보자를 접수해 고등학생 8명, 대학생 5명의 지역 수상 후보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구성, 운영하는 중앙심사위원회는 각 지역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겸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 100명(고등학생 60, 대학생 40)을 최종 결정해 오는 10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열리는 시상식에는 대통령이 참석, 표창과 메달을 직접 수여하며 한국지도자육성재단 후원으로 장학금도 지급한다. /정후식기자 who@

광엑스포 '주제 영상관' 건립

시, 60억 들여 상무시민공원 인근에 3D 입체... '빛으로 여는 미래' 체험

내년 10월 개최되는 2009 광주세계 광엑스포를 홍보하고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주제 영상관'이 서구 상무시민공원에 건립된다. 광주지역 최초의 3차원(3D) 입체영상관으로 구축되는 이 영상관은 엑스포가 끝난 후에도 상징 건축물로 영구 보존된다.

광주시 광엑스포추진기획단과 (재)광주세계광엑스포(사무총장 홍진태)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 내 근린공원지역에 60억원을 들여 2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면적 1천 500㎡ 규모의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 주제 영상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0월까지 설

계 공도를 실시해 당선자가 확정되면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을 변경, 11월께 공사에 들어가 내년 8월 완공할 예정이다.

광엑스포의 주제인 '빛으로 여는 미래(The Future With Lights)'를 공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 영상관은 관람실과 주상영관에 들어가기 전 그 내용을 미리 일별할 수 있는 대기공간 등을 갖추게 되면 향후 회의실과 극장 등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특히 영상관은 광주지역 최초의 3차원 입체영상관으로 건립돼 시민들에게 광엑스포를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LED 등 광기술을 적극 활용해 광엑스포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시공원에 건립되는 시설만큼 광엑스포 이후에도 영상·집회·전시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산업자원부 주최로 내년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28일동안 개최되는 '2009광주세계광엑스포'는 광주시가 지난 2000년부터 펼쳐온 광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광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아쉽게 추진해온 대규모 국제 이벤트다. 세계 50여개국이 참가할 예정인 이 행사는 광관련 전시회와 국제학술대회는 물론 '세계 빛의 향연' '빛의 뮤지컬'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꾸며진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남구 '효사랑 미소단' 발대

2일 광주시 남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효사랑 미소단'(단장 임금숙) 발대식 직후 미소단원들이 위촉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 미스코리아 출신 8명 등 모두 15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미소단은 남구청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에 참석해 효사랑 운동을 전파할 계획이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영구임대주택 학생 교육 지원 확대 아파트 3개 단지로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영구임대주택 거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빛고을 희망가꾸기 교육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광주시는 1일 "올들어 시범실시해 온 영구임대주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사업을 쌍촌주공과 두암2주공, 금호시영 등 3개 단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부모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선행학습과 보충

학습 기회가 없는 영구임대주택 학생들을 위해 광주교육전문 벤처기업인 (주)올에이(대표 채영석)와 공동으로 서구지역 영구임대주택 1개 단지를 대상으로 인터넷 무료 동영상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직후 참여 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8%가 도움이 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경제적 이유 때문에 30명 중 1명만이 학원에 다니다

고 응답해 교육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자아인식 고취, 부모역할 교육 등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시 장상근 건축주택과장은 "영구임대주택 교육지원 사업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만큼 내년에는 10개 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민선 4기 전반기 결산과 과제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孝사랑' 이미지 정착 성공 교육·환경·복지 향상 주력

민선 4기 전반기 광주 남구의 정책 핵심은 대규모 지역개발을 통한 이미지 제고였다면, 남은 2년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속 발전이 가능한 신(新) 성장동력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남구는 '젊고 풍요로운 남구, 도약 21' 실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지식재산 도시조성'과 관련 지난 5월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남구를 국내 최고의 지식재산 도시로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재산도시 선포 이후 '효사랑 음악벤처'와 '황단보도 발광장치' 등 7건의 발명품을 특허출원하는 등 단 순한 정책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이다.

광주경실련도 황일봉 남구청장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효사랑 사업 등은 대체로 양호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황 청장이 대촌드라마·영화센터 건립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업무정지를 당한 후



벌금형을 선고받아 복귀했지만 약 4개월간의 구경 공백상태를 빚은 것은 옥의 티로 지적됐다.

공약의 경우 경제(11건), 환경(9건), 교육·문화(7건), 복지(7건), 자치행정(1건) 분야 등 35건 중 32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3건은 보류되거나 미착수된 상태다.

송암산업단지를 주거 및 상업단지 용도 변경하는 사업은 인구

려운 실정이며, 제석산생태복원 또한 사업비 50여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복원에 대한 타당성 입증 및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보류됐다.

이에 남구는 남은 2년 동안 효사랑 사업과 지식재산 도시 관련 사업을 강화해 주민복지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쌀 개방으로 허덕이고 있는 대촌지역 농민들에게 대체소득 작물을 찾아주고,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990만㎡ 규모 국가식량자원 경제특구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 건립 ▲푸른길 발명·문화의 거리 조성 ▲어린이 발명 놀이터(2개소) 건립 등으로 지식재산 도시로서 역량을 더욱 키워나갈 예정이다. 황일봉 남구청장은 "지난 2년간은 후반기 역점사업들을 준비해나가는 과정이었다"며 "주민과 함께 교육의 도시, 환경의 도시, 살고 싶은 남구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영어 FM 라디오방송사 타당성 조사

광주시 내달까지 시민의견 수렴 등 연구 용역

영어 FM 라디오방송사 설립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까지 실시한다.

이번 용역은 타당성 조사와 함께 방송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수요조사 및 사업방향 제안을 포함하며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25일동안 추진된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시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용역 내용을 공고, 연구용역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에 대한 제안서 제출과 입찰참가 자격 등을 안내하고 있다.

입찰 참가 희망 기관은 오는 11일 광주시 정보화담당관실에 직접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7월 중순까지 협상적격자 선정과 계약을 마치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규 영어 FM 라디오방송을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등 3개 권역에 도입하고 사업 주체를 방송구역 관할 지자체로 의결함에 따라 영어 FM 라디오방송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시는 용역결과 타당성이 입증되면 다음달 법인설립 조례 제정, 9월 법인 설립, 10월 방송국 허가, 11월 시험 방송, 12월 방송국 개국 및 본 방송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시소방본부-보훈병원

소방전문치료센터 협약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 및 업무상 질병 발생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소방안전본부는 2일 본부 회의실에서 광주보훈병원과 소방전문치료센터 협약을 체결했다. 시 소방공무원들은 이 센터에서 일반·종합건강검진은 물론 화재·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 진료를 저렴한 비용(20% 할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재혼반 10년!' (Remarriage 10 Years!) featuring a couple and text about a 10-year anniversary celebration with gifts and a special menu.

Advertisement for '복지분영' (Welfare Distribution) showing a scenic view of a development area and listing various housing and service options.